창사 61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
남양건설

광주매일신문

광주매일TV
▶m.kjdaily.tv ▶m.kjdaily.com 광고문의 062)650-2070

제7449호 대표전화 (062) 650 - 2000 kjdaily.com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(음력 4월 16일)

“5·18정신 ‘헌법 전문’ 약속 지금껏 못 지켜 송구”

文대통령 5·18 39주년 기념사

“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·18 다르게 볼 수 없어”
“학살 책임자, 암매장·성폭력·헬기사격 등 규명해야”

문재인 대통령은 “헌법 전문에 5·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”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·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·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,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▶관련기사 2·3·6면

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에 4·19 혁명, 부마항쟁, 5·18 민주화 운동, 6·10 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해 개헌안을 발의했으나,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.

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냄과 동시에 여전히 헌법 전문에 5·18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.

문 대통령은 이어 “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”며 “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”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“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,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”며 “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, 너무나 부끄러웠고,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특히 문 대통령은 “아직도 5·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”고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“6월 항쟁은 5·18의 전국적 확산이었고,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다”며 “5·18의 진실은 보수·진보로 나뉠 수 없다.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·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

문 대통령은 “‘광주사태’로 불리던 5·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,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.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·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”고 언급했다.

문 대통령은 “이미 20년도 더 전에 5·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”며 “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. 의미 없는 소모일 뿐”이라고 잘라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“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주 5·18에 감사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”이라며 “미래로 나아가도록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달라”고 당부했다.

문 대통령은 동시에 “학살의 책임자,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,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”며 “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”이라고 역설했다.

문 대통령은 “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”이라며 “5·18 이전,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지난해 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, 아직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”며 “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”고 촉구했다. /김진수기자

유가족 위로하는 文대통령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·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9주년 5·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80년 당시 고등학생었던 고(故) 안종필 군의 묘역에서 어머니 이정임 씨를 위로하고 있다. /김애리 기자

광주매일TV, 광주북구의회 구정질문 생중계 오늘 오전 10시부터

광주세계수영선수권 개최 준비 ‘순조’

경기장 공사 공정률 90%대…교통·수송 대책도 만전
삼성 등 지원 잇따라…FINA, 24일까지 막바지 점검

오는 23일로 D-50일을 맞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19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시설 공사 전체 공정률이 86%를 보이고 있다.

주 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관람석을 기존 3천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리고 각종 운영시설도 2배 이상 확충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. 수구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에는 임시수조 2개와 4천340석의 관람석을 설치한다. 남부대 권역 공정률은 92.9%로,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.

염주종합체육관에는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관람석을 기존의 1천320석에서 5천360석으로 늘린다.

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공정률은 90.4%다.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대 축구장에는 하이다이빙 타워와 임시수조 1개, 관람석 3천27석을 마련하는 중이다. 공정률은 94.1%다.

오픈워터수영이 열리는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는 2천9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폰툰(출발대), 코스 안내표지(부이) 등을 설치한다. 현재 공정률 50%로, 다음달 10일 준공한다.

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한 선수촌은 완공됐다. 조직위는 부대시설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7월2일 사전 공개에 이어 5일 개촌식을 할 계획이다.

대회 기간 수송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다.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, 심판, 미디어 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승용차 250대, 승합차 60대, 버스 110대 등 차량 420여대를 준비했다.

기업 지원도 활발하다. 삼성전자는 선수촌 숙소와 경기장 등에 비치될 가전제품 중 냉장고 1천996대(7억원 상당)를 기부하기로 한 기탁서를 보내왔다. 삼성전자 외에도 지역기업의 기부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.

한편 국제수영연맹(FINA) 기술위원단은 오는 24일까지 광주에서 막바지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.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 등 대표단과 종목별 기술위원단 30여명은 대회 경기운영과 의무·도핑 준비상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한다.

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18일 남부대 주경기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.

이병훈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대회 관람객 증가 등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회 참가와 정부의 관심 표명이 중요하다”며 “국무회의 운영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무회의 등에서 광주수영대회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되도록 지원해달라”고 건의했다. /김다이기자

전남 김, 유럽 식탁 오른다

벨기에수산물박람회서 100만 달러 수출계약

전남산 김이 유럽인들의 식탁에 오른다.

전남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19일 “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7-9일 2019 벨기에브뤼셀수산물박람회에 참가한 ㈜바다명가(대표 김자영) 김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”고 밝혔다.

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, 전남도,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(재)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주관으로 추진된다. 참여 기관은 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, ㈜더오션이다.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3년이다. 총사업비는 51억원이다.

이번 벨기에브뤼셀수산물박람회에는 2차년도 수혜기업인 청우F&B, ㈜바다명가, 다시마전복수산영어조합법인 등 3곳이 참석해 알긴산 음료, 청각젤리, 조미김, 각종 해조류 제품, 반건조 조미전복, 전복병조림, 피시소스 등 다양한 지역 수산제품을 전시, 홍보했다. /김재정기자

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
광주매일신문 · 경남매일 MOU체결
제31회 광주광역시양궁협회장배 종별양궁대회
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6강 -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
▶ m.kjdaily.tv ▶ m.kjdaily.com PC·스마트폰·유튜브·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광고·시청문의 062)650-2024

광주매일신문 창사 28
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
광주상생카드
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
광주광역시가 발행하고 지역 내 업소에서 사용
가능한 체크 및 선불카드입니다
SUPERMARKET HAIR SHOP BAKERY COFFEE SHOP
광주상생카드 종류
체크카드 선불카드 (3 · 5 · 10 · 20 · 50만원권)
이용제한 업소
백화점,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
온라인 가맹점(PG, 인터넷MALL), 유흥업소 등
사용자 혜택
체크카드
캐시백, 패밀리랜드·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
선불카드
권면금액의 5% 할인판매
(1인당 할인가능 구매한도 월간 50만원, 법인제외)
※2019년 광주광역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
발급신청 및 구매방법(운영대행 : 광주은행)
체크카드
광주은행 영업점, 광주은행 홈페이지(www.kjbank.com),
광주은행 모바일웹(m.kjbank.com)
선불카드
광주은행 영업점
※ 현금 또는 광주은행 신용 · 체크카드로 구매가능
사용업소 혜택
영세 · 중소가맹점(연매출 5억원 이하)의 광주상생카드 결제
수수료 전액지원
이용가능 업소
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개 가맹업소
카드 이용 문의전화
광주은행 카드 헬프센터 1577-3650
광주광역시 광주은행